

1인 가구 꾸준한 증가…광주·전남 50만가구 넘어섰다

1인 취업 가구 비중 광주 높고 전남 줄어…고령층 취업 늘어나
맞벌이 가구 광주 전년대비 3000가구 감소 전남 4000가구 증가

고령화와 미혼·비혼층 증가 등으로 광주·전남지역 1인 가구와 1인 취업 가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자’ 가구가 감소하고 맞벌이 가구 비중이 줄어든 반면, 전남은 유배우자 가구와 맞벌이 가구 비중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취업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1인가구 수는 23만 5000가구로

전년(21만 8000가구) 대비 1만 7000가구(7.8%) 증가했다.
광주시 1인가구 중 취업가구 수는 13만 5000가구에서 15만 1000가구로 1만 6000가구(11.8%) 늘었다.
특히 광주시 취업가구의 비중은 61.9%에서 64.3%로 2.4%포인트(p) 증가했는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2.8%p)에 이어 상승폭이 가장 컸다.
광주시 1인가구 중 취업가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1.6%p, 여성3.0%p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와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이 늘었고, 50대와 60대 등 고령층 1인가구의 취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복지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1인가구 수는 27만 9000가구에서 29만 7000가구로 1만 8000가구(6.5%) 늘었고, 1인 취업가구도 19만 97000가구로 전년(18만 6000가구)보다 1만 1000가구(5.9%) 증가했다.
다만, 전남 1인가구 중 취업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0.3%p 감소한 66.2%를 기록했다. 특히 남성(-0.8%p)과 여성(-0.1%p) 모두 1인 취업가구비

중이 감소했는데, 연령별로 30대와 50대는 취업이 늘었지만 20대 청년층과 60대의 취업이 줄었다.
이는 인구 고령화 심화 등으로 전국에서 가장 지역소멸 위기가 높은 전남이 ‘나 홀로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1인가구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1인 취업가구는 감소를 면치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는 1인가구 등의 증가로 유배우자 가구 감소세도 뚜렷했다. 광주시 유배우자 가구는 지난해 35만 6000가구로 1년전(36만 1000가구)보다 1.4% 감소했다.
또 지난해 광주시 맞벌이 가구 수는 전년대보다 3000가구 감소한 17만 3000가구로 집계됐다. 최

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졌고,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요인으로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지난해 맞벌이 가구가 대폭 증가한 기저효과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전남 유배우자 가구는 0.8% 증가한 47만 6000가구를 기록했고, 맞벌이 가구도 27만 7000가구로 전년 대비 4000가구(1.5%)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전국 23만 2000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조사했으며, 상대 표준오차는 전국 1.6%, 특·광역시 3.5~9.0% 내외를 목표로 목표오차를 정해 데이터를 추출한 결과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AI산업 등 광주 중점산업 기업 금융지원 확대



광주시·신용보증기금과 협약
8억원 출연하고 보증료 지원

광주은행은 “광주시 북구 빛고을창업스테이션에서 ‘광주시 중점산업 창업·중소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광주 지역 내 AI산업, 제조업, 미래차 등 중점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민·관·공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이주영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협약에 따라 8억원을 특별출연하고, 협약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1년간 연 0.5%의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광주은행의 특별보증대출을 공급하고, 광주시는 2년간 연 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 자리잡은 기업들의 금융 조건을 완화하고,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이 손잡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지역 창업자들의 금융 조력자로서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 탄소중립 실현 미래세대 에너지 교육

가스공사·에너지시민연대 공동

한국전력공사(한전)는 “한국가스공사, 에너지시민연대와 함께 이달부터 10월까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중학생 대상 ‘2025년 미래세대 에너지교육’을 공동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초·중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

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전과 에너지시민연대는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비는 한전과 한국가스공사가 지원한다.
한전은 앞서 2021년 에너지시민연대와 협업 협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의 날 ‘8·22 에너지 영상공모전’,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 등 다양한 에너지 감축 활동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 교육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시

와 광주시 소재 초·중학교 50곳의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등의 교육을 이어나간다.
교육은 기후에너지 전문 강사단이 각 학교를 방문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교육과 캠페인을 펼치는 방식이다. 또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시즌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시행한다.
한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 국민이 전기의 가치와 저탄소 사회 전환 등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부가가치 등 업종간 격차 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업종간 지불 여력의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총이 19일 발표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2001년 1865원에서 지난해 9860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률은 428.7%로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73.7%)의 5.8배, 명목임금 상승률(166.6%)의 2.6배를 기록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지난해 63.4%로 최저임금 적정수준(45~60%)을 넘어섰고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크게 올랐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준이 높지 않았던 과거에는 시장의 수용성이 높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진 현재 상황에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

성이 매우 커졌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업종별로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을 격차가 크다는 점도 짚었다.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는 업종별 지불 여력과 노동생산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써 숙박·음식점업은 지난해 2811만원을 기록해 제조업(1억5367만원)의 18.3%, 금융·보험업(1억8169만원)의 15.5%에 그쳤다.
숙박·음식점업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85.6%로 금융·보험업(42.8%), 제조업(56.7%)을 크게 밑돌았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학생 10만명 대상 ‘AI 클래스’ 운영



삼성전자가 유치원생, 초·중·고교생 10만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활용한 AI 클래스를 운영한다. 삼성스토어 대전에서 열린 ‘갤럭시와 함께하는 AI 클래스 @삼성스토어’에 참여한 아이들이 갤럭시 시 시를 활용해 티셔츠를 만든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농어촌공사 집중 호우 대비 농업 배수로 정비

한국농어촌공사는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 호우 및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용 배수로를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용 배수로는 논밭에 고인 빗물 또는 지하에서 스며 나오는 물을 모아 인근 하천과 배수장으로 흘려보내 농작물의 침수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이번 배수로 정비 활동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태풍의 빈도 및 강도가 높아지면서 배수로 내 수초 제거, 퇴적토 준설 등을 통해 안정적인 통수 능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부터 이번 달까지 상습 침수구역과 타작물 재배지, 시설하우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4129km의 농업용 배수로를 정비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37억원 이상 늘어난 18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정비 규모 및 대상을 확대했다.
장상규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장은 “공사는 집중 호우와 태풍 등으로 배수로가 손상되면 신속한 긴급 정비를 통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배민 “1만원 이하 주문 중개 수수료 전액 면제”

입점업주단체와 상생 방안 합의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합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사회적 대화에서 이런 추가 상생 방안에 중간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여러 상생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를 업주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중간 합의안에는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배달비 차등 지원을 시행하고 1만원 초과,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정할 예정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주문 금액이 적을수록 업주 지원금을 높여줘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이번 상생 방안에 포함됐다.
배민은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직접 발행하는 쿠폰의 할인액에 대해서는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번 합의에 따라 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밖에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업주의 서면절차 양식 간소화 ▲입점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업주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내

용도 합의안에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3월 말부터 진행한 업주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중간 합의안을 시행할 경우 우아한형제들이 추가 상생을 위해 지원하는 규모는 연간 최대 1000억원, 3년간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 상생안 시행 시에도 입점업주의 배민1플러스 매출 기준으로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상생 요금제는 유지된다.
이강일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은 “배민이 (그동안 경쟁사와의) 경쟁 관계에서 중간에 있는 사업자에게 출혈을 감내하도록 내민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배민이 자영업자의 문제와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협의 테이블에 나와 유의미한 결과를 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그러나 이날 배민의 방안에 대해 보통 주문은 2만원 이상이 많아 1만원 이하 소액 주문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977.74 (+5.55)
↑ 코스닥	782.51 (+2.78)
↑ 금리 (국고채 39년)	2.475 (+0.003)
↑ 환율 (US D) 〈오후 4시 35분 기준〉	1379.25 (+9.85)

광주신세계 7월 3일까지 창고형 빈티지숍 브랜드 ‘비바무역’ 팝업스토어

광주신세계는 “오는 7월 3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비바무역’ 대형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비바무역 팝업은 지난해 팝업에서 지역 MZ세대를 중심으로 빈티지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두번째 팝업 행사로 진행하게 됐다. 〈사진〉 비바무역은 남양주에 위치한 창고형 빈티지숍 브랜드로, 스트릿부터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다양한 중고의류 제품들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특히 가성비 높은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갖춰 MZ세대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광주신세계 비바무역 팝업에는 ‘폴로랄프 로렌’, ‘타미힐피커’, ‘리바이스’, ‘나이키’, ‘캘빈 클라인’, ‘디올’, ‘모스키노’, ‘켄조’, ‘버버리’, ‘막스마라’ 등이 참여한다.
광주신세계는 팝업 참여 브랜드 제품 가격이 기본 5만원 대에서 시작되는 만큼 다양한 세대가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비바무역 팝업 당시 지역민의 뜨거운 호응에 행사 중간에 물량을 추가 투입



했던 점을 반영해 올해는 혜택을 확대했다.
오는 22일까지 비바무역 입장 고객에게 ‘비바베어 키링’을 선착순으로 증정하고, 같은 기간 50% 할인 특가존도 운영한다. 특가 상품으로는 ‘타미힐피커 셔츠’를 선착순으로 한정 판매한다.
오는 7월 3일까지는 ‘3+1’ 프로모션을 통해 팝업 매장에서 4개 제품을 한번에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저가 상품 1개를 무료 증정한다. 더불어

구매금액대별로 10·30·50만원 이상 구매시 각각 빈티지 스카프, USA 티셔츠, 스토조 텀블러를 증정한다.
오는 27~29일까지는 비바무역, 플레이스마트에서 합산 구매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7% 신백리워드 증정 혜택을 제공한다. 신백리워드는 지하 1층 본관과 플레이스마트 연결통로 사은행사장에서 적립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